"임기내 박물관·교육관·영탑 건립"

봉선사 새주지 밀운스님

"21세기 종합불사 계획을 수립, 봉선사가 미래불교를 펼 수 있는 포교, 교육 등의 중심도량이 되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밀운스님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물관·교육관·영탑 건립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봉선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교종본찰"이라며 "앞으로 주말수련, 각종 연수, 사회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관을 설립해 승·속이 함께 신심을 다지고 미래불교를 펼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임기동안 △10년 복원불사 추진 △통일을 대비한 불교중흥의 전진기지 조성 △종무행정강화(총무과장, 호법과장 신설) 등의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현 개혁종단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종도들의 뜻에 의한 개혁종단이라면 그동안 징계된 스님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며 "만약 감정적으로 징계된 부분이 있다면 사면해야 마땅하고 이것이 바로 개혁종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했다. 밀운스님은 1954년 대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총무원부원장, 중앙종회의원 및 부의장, 봉은사주지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중근 기자

"20년 연기 토대 불교영화 만들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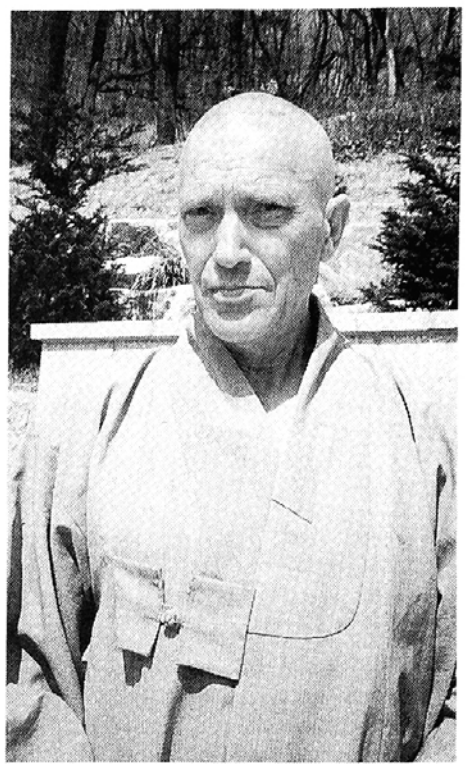
출가한 탤런트 보월스님

"수행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제 출가했으니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법을 포교하고 수행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적색지대'(KBS) '아들의 여자'(MBC) '슈팅'(KBS) 등의 드라마에서 개성강한 연기를 보여줬던 탤런트 김영일씨(46세)가 보월(普月)스님으로 불가에 귀의했다.

지난 96년 8월에 소세포성 폐암이 발병해 '슈팅' 출연도 중도하차한 보월스님은 인천 흥륜사 법륜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로서의 생활에 임해왔다. "살아오는 동안 출가의 기회가 세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암과 싸우면서 병만 치유된다면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치리라 결심했습니다"고 말하는 스님은 암선고를 받은지 8개월만에 완쾌됐다. 앞으로 경기도내에 3천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대정사'를 건립할 계획인 스님은 지난 20여년 연기경험을 토대로 불교영화를 만들겠다는 원력도 세우고 있다.

강지연 기자



59세의 러시아 행자

Focus

6일 직지사에서 회향된 조계종 행자교육에서 가장 눈길을 끈 행자는 러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에 귀의한 명공스님(59, 맥시모프 바실리).

모스크바대학에서 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스크바대학 환경연구소 연구원과 어업연구소 원장 등을 지낸 명공스님이 한국불교에 귀의하게 된 인연은 지난 91년 리투아니아에서 숭산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스님은 96년 10월부터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정각원서 '불교수행…' 법문

도원 파계사 회주스님은 15일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스님)의 고승초청법회에서 '불교수행의 핵심'이란 주제로 법문했다.

서울구치소 진관스님 위로

월탄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스님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계종 종회의원 진관스님을 면회하고 위로했다.

파라미타 충북지부 발족

성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조계종포교원장)는 26일 오후3시 청주 흥덕사지에서 충북지부 발대식을 갖는다.

中 하남 '황제대제' 참석

도문 대각사 조실스님은 9일 중국 하남성 신정시에서 열린 황제대제(黃帝大祭)에 참석했다.

대만불교와 업무교류

태응 불교TV 사장스님은 9일 심정스님(대만불광사), 영문스님(불교교육사회센터 관장) 등의 내방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교류 추진을 약속했다.

고금당선원 3년불사 회향

법조 고운사 주지는 18일 고금당선원 3년결사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우국지사 48위 천도재

성우 파계사 주지는 11일 러시아에서 숨진 우국지사 48위의 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회엄십선계 수계법회

도법 실상사 주지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증명법사로 화엄십선계 수계법회를 연다.

향승 보수교육·세미나

동성 경남향토예비군 법사단장스님은 5월 8~9일 향토사단 정신교육관에서 향승 보수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한편 법사단에서는 신규향승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0551)93-3434

서울대 병원에 입원

김지견 전 통불교연구원장은 지난달말 폐렴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병실은 내과병동 11층 203호. (02)708-1549

'서양인의 불교관' 특강

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는 '서양인의 불교관'을 주제로 15일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4·19 이야기' 출판기념회

안동일 재가연합 상임대표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4·19-안동일 변호사가 들려주는 4·19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대한민국사진전 입선

옥명수 불교부산방송 사진가회 회장은 제16회 대한민국 사진전람회에서 '동자승'을 출품해 입선했다.

제1회 농아 볼링대회

이태원씨(조계사 원심회원)는 5일 천호동 매카볼링장에서 열린 제1회 농아 볼링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내년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올림픽대회 예선을 통과했다.

"재적사찰 갖기등 조직강화"

조계종 대구 동화사 신도회장 최 동 원 보살

"지역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해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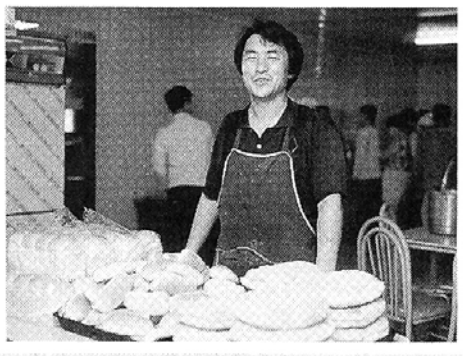
73세로 조계종 최연장 교구신도회장에 취임한 최동원보살(법장행·제9교구 동화사 초대신도회장)은 화합된 모습을 일궈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면과제는 느슨해진 조직의 재정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적사찰갖기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화사 통일대불조성 추진위원회 전형위원, 대구상공회의소 여성경영자회장을 17년간 역임한 최회장이 다른 거물급 인사들을 제치고 신도회장에 추대된 것도 조직관리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은 지난 87년 선덕여왕숭모회를 창립, 회장을 맡고있다. 선덕여왕숭모회는 21일 대구부인사에서 선덕여왕숭모제를 봉행한다.

대구=이윤호 기자



'소쩍새'들이 기다리는 '자비의 빵'

박태영씨 보시행 1년

장애인, 고아, 무의탁노인들이 모여사는 원주 소쩍새마을은 그 어느 날보다 매월 첫째 일요일을 제일 좋아한다. 박태영씨(44·서울 박태영제과점 대표)가 와서 케익·카스테라·팥빵 등 한아름의 빵을 구워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소쩍새 원생들은 이날 그 달에 들어있는 생일을 모아 합동생일잔치도 연다.

우연히 방송을 듣고 소쩍새마을을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1년전 빵굽는 일을 하게 됐다는 박씨는 빵을 기다리는 소쩍새 가족들의 티없는 얼굴이 빨리 보고싶어 한달 내내 원주 갈 날을 기다린다고.

〈사진제공=한북스님〉

게시판

♣ 알림

봉축카드판매=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봉축위원회의 후원으로 봉축카드를 제작, 판매한다. 〈사진〉

봉축카드는 봉축캐릭터와 연꽃을 기본디자인으로 5종류가 있으며 장당 6~7백원이다.

카드판매 수익금은 전액 대한불교청년회 만해회관 건립기금으로 쓰여진다.(02)738-3385

혜창스님 초청법회=서울 대각사 용성일요법회는 20일 오후2시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초청 '부처님오신날과 연등축제'를 주제로 법문을 듣는다.

혜담스님 초청법회=혜담스님(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초청 4월 다보법회가 23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02)703-0108

봄나들이 물품후원=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에 물품(간식, 빵)후원을 받는다. (02)203-3677

정기산행=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20일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장소는 대전 대둔산이며 동신초등학교 앞에서 오전7시에 출발한다. 회비 1만5천원. (053)743-2554

의약품보시=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생활보호대상자 80세대를 대상으로 '의약품상자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정내에 항상 비치하여 응급시에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날짜는 17일. (051)893-5034

♣ 강좌

수화·점자 기초교실=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5월 22일 개강하는 3개월과정의 수화·점자 기초교실 수강자를 모집한다. (02)720-4528

♣ 모집

물리치료 자원봉사자=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찜질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천태사교의=원효사상연구원(원장 심재열)은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기신론원효소, 오후2시 천태사교의 강좌를 연다. (02)3672-9097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캠페인 1,455,420원 △서울대지질해양학과 교내 캠페인 1,731,910원 △조계종방생법회 136,000원 △청양신문사 등 8개단체 8,539,00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2,487,500원 △이경희 1,000,000원 △윤태임 1,000,000원 △서민숙 300,000원 △한종한 200,000원 △김승진 200,000원 △차혜영 200,000원 △성하성 140,000원 △김기숙 100,000원 △이혜성 100,000원 △김이권 100,000원 △박경학 100,000원 외 86명 〈2일 현재 총182,797,76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

종정예하의 사퇴는 총무원 집행부의 불신을 의미합니다.

현재 종단의 집행부는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시며 한국불교의 상징이신 종정예하께서 사퇴를 표명하시어 전종도와 2천만 불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집행부는 이에 대해 종정예하의 참뜻을 받들고자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퇴를 번복하셨다'는 등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하여 한국불교의 상징이신 종정예하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개혁불사이후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보완을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하시며 개혁불사에 앞장 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스스로 개혁종단임을 표방하면서 이러한 종정예하의 교시를 무시하고 전횡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종정예하의 사퇴는 이러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집행부는 종정예하의 사퇴에 대해 형식적인 방문으로 일관하였으며,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은 종정예하의 친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다 전종도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뒤늦게 친견을 하려다 거절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부대중의 자주적역량으로 이루어진 종단개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도가 한마음 한 뜻으로 개혁불사를 이룬 것은 불교교단이 화합대중의 전통적 위상을 되찾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불교의 초석을 다지자는 공통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현재 종단이 송월주총무원 집행부와 몇몇 개인에 의해 전횡적 운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니 사부대중과 함께 안타까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의 집행부는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던 뜻과 달리 무원칙한 비민주적 종단운영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부패한 과거종단이 보여주었던 비자주성, 부도덕성, 부패상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종단개혁을 열망하는 사부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종단예산은 과거보다 10여배 늘어난 200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시형 대규모행사 및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 포교, 역경, 사회복지, 문화 등 종단의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에는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 집행부는 직영사찰등 종무행정을 파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의 사퇴와 종단개혁의 실종에 까지 이른 오늘의 사태는 현 집행부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종단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선본사등 직영사찰의 파행운영입니다. 직영사찰은 사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음성적 자금조성을 막자는 차원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영사찰은 파행운영으로 인하여 선심성 종권유지자금 및 음성적 자금의 본원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총무원의 예산은 예산회계법등 일련의 종법규정상 종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선본사의 경우 아무런 통제나 규정을 받지 않고 수십억의 삼보정재를 변칙적으로 지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총무원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음이 이번 재정분과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식적 직영사찰 분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이 집행부의 측근이나 송월주원장스님과 관련된 단체에 임의로 지원되었으며 종회의 추경예산결의나 승인을 받지않고 심지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변태지출까지 드러나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직영사찰이 이제 다시 송월주원장스님과 일부 승려의 부정한 사금고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사부대중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진 종단개혁불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중앙종회는 반개혁적 집행부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이런 반개혁적인 행위는 직영사찰파행운영뿐만이 아니라 종헌종법 위반, 직권남용등 종무행정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불교방송의 대규모 부정사건의 방관 및 은폐로 불교계의 위신이 다시 한번 추락되었습니다. 겸직 금지를 천명한 종헌을 위반까지 하면서 불교방송이사를 맡은 총무원장 송월주스님과 집행부는 불교방송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무관하다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집행부는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무원칙한 주지인사를 하는등 비민주적인 종무행정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국불교의 중대한 위기를 자초하는 문제로서 현 종단의 종회의원들은 중앙종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종회는 상정된 안건 20여개중 두 번째 안건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유회를 거듭한 끝에 자동폐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종회의 유회가 송월주 집행부의 권위적인 종무행정의 전횡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어졌다는 분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중앙종회의원이 나서서 개혁정신을 살려야합니다.

중앙종회는 주요 종책을 결정하고, 종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조정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종헌상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바로 종회의원스님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종회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전종도와 종회의원스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의 개혁은 구호에 그쳐서는 않됩니다. 말로만 개혁을 내세우며 다시금 독단과 전횡을 자행하는 현 송월주총무원장 집행부는 종단개혁의 완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스님들은 진정으로 불교개혁과 발전을 원하는 대다수 종도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종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토론하여 현 집행부의 부당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종회에서 거론될 사항과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에게 다시한번 개혁의 불사에 동참하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

공동대표 : 이정우 주종광 이성문 최지원 박현소
연 락 처 :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중앙종회사무처

전화 : 중앙종회 사무처 735-5860 · 749-4878
팩스 : 749-4879